

한 권의 불서 성부의 씨앗!

불서 읽기 캠페인

고따마 붓다 성열 스님 저음!문화문고 펴냄!2만2000원

역사와 설화로 붓다의 인간적 모습 그려



“우리는 부처님을 너무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과연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부처는 역사적 존재로 실존했던 ‘고따마 붓다’입니다.”

‘붓다’를 실존한 한 인물로 바라보고, 철저히 새로운 시각에서 편찬한 전기(傳記)가 나왔다. 저자는 서울 강남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포교·저술활동을 해온 강남포교원장 성열 스님(사진)이다.

스님은 ‘고따마 붓다’를 철저한 자료수집과 고증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스님의 이번 책 <고따마 붓다> 뒤에는 ‘역사와 설화’라는 부제가 붙었다. 이를 통해 스님이 인문학적이면서 불교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붓다’의 일대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책의 첫 장을 열어 보면 마치 역

사책과 같은 느낌이다. 1장 ‘붓다가 태어난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의 지리·정치·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떠한지, 그 당시의 사상의 상황은 어떠한지부터 먼저 짚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탄생과 전설’에서는 후일 부처가 될 사끼족 싯타타 태자의 출생 배경을 사끼족의 정치형태와 결혼관계를 통해 소상히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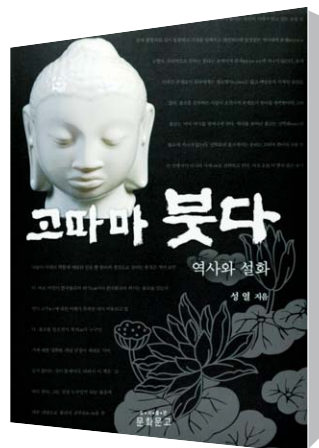
또한 그 동안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했던 탄생설화는 해석학적으로 설명한 경전과 근거자료를 찾아냈다.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짧은시절, 출가와 수행, 성도, 설법, 전도, 만연, 입종과 경전결집 등으로 총 10장에 걸쳐 붓다의 생애와 이후 제자들의 경전결집까지 정리했다. 마지막 장인 11장에서는 ‘그 밖의 이야기들’이라는 이름으로 본장에서 다루지 못한 붓다의 사

련과 불교의 전파 등을 다뤘다.

전체적으로 무겁지는 않다. 하지만 의문이 생긴다. 성열 스님이 왜 세삼 불교의 교주인 ‘고따마 붓다’를 주제로 책을 썼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부처님 전기를 만나왔는데 또 다른 책이 필요했을까.

“부처님을 ‘너무 거룩해서 잡히지 않는 존재’라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불교의 종교관은 인생의 궁극적 물음 위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 위에서 가르침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종교관을 바로 세우고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고따마 붓다’부터 똑바로 봐야 합니다.”

이는 스님의 불교운동 정신과도 연관이 있다. 스님은 1982년 당시 획기적으로 강남포교원을 연 이래 줄곧 <아함경>을 토대로 <부처님



말씀>(현암사)을 저술하는 한편, 붓다의 생애를 정리하는데 온 정열을 쏟아왔다. 신격화, 신비화된 불교를 지양하고 지식불교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다.

“어느 누구의 삶도 그가 놓인 구체적 상황에서 전개되는 활동일 뿐 정형화된 어떤 패턴이나 모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패턴에 맞추려고만 하면 생생한 삶이 아니라 박제화 된 죽은 삶이 되고 맙니다. 이 책은 ‘고따마 붓다’의 삶을 통해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불자다운 것인가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읽어졌으면 합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중국 불교의 역사 한 눈에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탄생된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고 발전되어 쇠락하고 부흥하는 역사 과정을 담은 책이다.

중국 문화의 3대 원천이라고 하는 유교·불교·도교의 시리즈 세권 중 하나이다. ‘불교의 역사에서 배우는 세상과 나 사이의 깨달음’이라는 부제는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에 이르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풍부한 도판과 흥미로운 일화는 중국 불교를 쉽고 입체적으로 이해시킨다.

한 권으로 읽는 불교
우더신 저음!주호산 옮김 산책자 펴냄!2만3000원

중국의 불교 전래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한나라 명제가 꿈에서 만난 금인(金人)을 찾기 위해 구법에 나섰다는 고증의 예를 통해 문화사적으로 접근한다.

가연숙 기자

봉정암 가는길 진정한 도반은 누구?



허허로운 마음을 탁발하려 발품 팔아가며 산사를 찾아다니는 사찰기행가 임윤수씨가 봉정암 가는 길을 책으로 엮었다. <열림>은 강원도 낙산사에서 955일 간에 걸친 복원 불사 기록을 담은 <울림>의 뒤를 잔잔하게 이어간다. 작가는 산이 좋아 즐기다 보니 산사가 보이기 시작했고, 산사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다. 단지 풍광이 좋아 다시 한번 걸고 싶어졌던 ‘인적(人跡)의 길’이 지금은 ‘마음의 길(道)’이 된 것이다.

마음이 길을 만나는 시간 열림
임윤수 글·사진가야복스 펴냄!1만 1000원

작가가 5년간 속세와 봉정암 산문을 유람하며 써내려간 기행담을 읽다보면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열쇠와 만날 수 있다. 함께 걸고 싶은 길, 봉정암 가는 길에서 만나는 진정한 도반은 누구일까?

가연숙 기자

내 얼굴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



얼굴. 혼자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볼 기회를 가져 보라.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얼굴은 세상을 향해 가장 잘 드러난 자기의 창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기도 하다. 살아 온 날과 현재의 생각들이 다 담겨 있기에 마흔 살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글 잘 쓰는 스님’ <해인>지의 편집장으로 지명도를 넓혀 온 원철 스님(조계종 총무원 재무국장·사진)이 그간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했던 글들과 새로 쓴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주로 3-5분 내로 읽을 수 있는 짧은 이야기들이 상자 속의 보석처럼 들어와 있다.

절집 주변의 이야기와 세태를 바라보는 스님의 따뜻한 시선이 매끄러운

문장력과 어우러져 즐거운 사유의 공간을 열어준다. 다양한 경전과 조사들의 어록에서 끌어 들인 일화들이 결집된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은 일상에서 한 박자 쉬면서 생각하는 여유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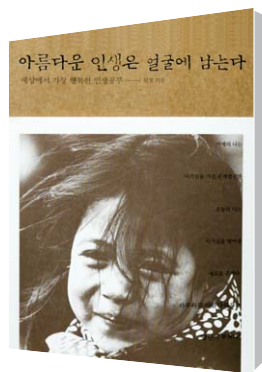
법보종찰 해인사라는 수행 공간에서 짧은 날의 열정을 정진으로 마를 질하고 <해인>지 편집장이라는 문화 활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 온 스님의 눈에는 비치는 모든 것이 참살이의 골간이다. 허둥지둥 사는 현대인들에게 손닿는 곳 눈길 가는 곳이 전부 아름다운 삶의 재료들임을 어깨를 툭 치듯 일깨워 주는 것이 원철 스님 글의 참맛이다.

저자의 사형인 원택 스님은 ‘쉽다’는 코드를 통해 원철 스님의 글을 평가한다. 스님들의 글은 자칫 한문투나 어투투로 흐르기 쉬운데 원철 스

님은 한글세대에 어필되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선민 논설위원은 이 책을 두고 “나는 우리 불교계가 1970-80년대를 풍미했던 법정 스님 이후 오랫동안 일반 사회와의 소통을 매개하는 글 쓰는 스님을 배출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며 “원철 스님이 글로 불교와 세상을 잇는 새 가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종단의 소임을 맡아 수도승(首都僧) 생활을 하고 있는 원철 스님은 세속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한다.

“서울로 올라와보니 생활은 뻔뻔해졌지만 글 쓰는 데는 더 좋다는 것을 느낀다. 사람도 다양하고 사건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골에서만 살았다면 절대 몰랐을 것들도 보게



이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스님 저음!문화문고 펴냄!1만 원

된다. 도시에 와서 ‘소통’ 문제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 우리만 쓰는 언어로 이야기 하면 소통이 안 되더라.”

임연태 기자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나를 깨우는 108배	구본일	김영사
2	연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사할, 어느 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4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5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6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근	붓다의 마음
7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8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사
9	사할 100미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10	공부하다 죽어라	현각	조화로운 삶

*불사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중생교육을 위한 맞춤 교육 카이로프랙틱·전생·빙의 치유법

지도자 모집

- 교과목**
 - 카이로프랙틱 - 경추, 흉추, 요추, 골반, 선추 이론 및 실기
 - 골격학, 근육학, 운동처방학
 - 최면술, 전생·미래체험, 빙의 퇴치법, 집중력 강화, 정신질환, 불면증 해소
- 기간**
 - 2급과정 (2개월) • 1급과정 (1개월)
 - 미국 팔머대학 교재직강, 2년 전문대 교육 과정을 108 시간 집약 완성
 - 최면 이론실기 8회
- 장소**
 -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서 도보로 5분, SK주유소 뒤, 기숙사 이용 무료
- 입학일시**
 - 2008년 5월 1일

세계 불교 해동화엄종 부설 교육연수원

서울·구로구 구로1동 658-201 천인빌딩 5F
본원 교학과 Tel : 02-853-6010~1



원장 우혜안 스님

고성능 CCTV 카메라를 원하시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옥천대성사 예철 스님

고장 발생이 거의 없는
꼼꼼한 시공

가찰보안

DVR 모니터 250만원
카메라 4대 (설치비포함)

작동점검, 케이블 보수
A/S 및 정기점검 서비스

전화문의

043-732-5560

011-9422-8453

♥ 알립니다.

전화주시면 설치장소를
답사하고 설계를 마친후
설치작업이 시작됩니다.

윈도시스템

정단 카메라 시스템으로 사실재산 안전하게 !!!